리모델링업체 부실·늑장시공에 '속타는 시민'

봄 이사철 배짱영업 기승…민사소송 외 하소연 할 곳 없어
소보원 매년 100여건 피해 접수…광주시·구청은 나몰라라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이사한 박기수(46)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업체에서 차일피일 완공시점을 미룬데다 외벽을 쌓지 않아 집이 방호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박씨는 "공사일정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이삿날을 두 차례나 바꿨는데, 이사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집 곳곳이 공사판"이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면 업체 관계자들이 잠깐 왔다가 1~2시간 일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른 여러 곳의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해당 업체를 문제삼으려 했지만,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서민들이 집 리모델링 과정에서 업체의 횡포를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전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피해 보상 법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노려 잇속을 챙기고 있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 등도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제재 법규가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자격이 있는 업체는 ▲서구 367곳 ▲북구 327곳 ▲광산구 249곳 ▲남구 101곳 ▲동구 79곳 등 총 1123곳이다

광주지역 인테리어(리모델링) 설비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5년 103건, 2016년 126건, 2017년 106건 2018년 3월31일까지 33건 등 매년 100건 이상이 넘는다.

인테리어 설비 허가업체의 횡포와 함께 무허가 업체의 난립도 시민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15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무면허 업체가 시공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 '마구잡이식' 저가수주에 나서면서 하자와 공사비 추가 요구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창호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세영 광주시 남구청 전문건설업담당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부실 시공이나 계약기간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등이 피해방지와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내건축공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하는 피해규제 신청과 민사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층간소음 갈등 '사람 잡겠네'

이웃집에 오물 묻히고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30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집에 오물을 묻힌(재물손괴) 혐의로 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42)씨는 지난 2월 13일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서 4층에 살던 B(여·70)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초인종 등에 총 9차례 오물을 묻힌 혐의다.

B씨의 바로 아랫집인 3층에 살던 A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3월27일까지 새벽 시간에 자신의 손안에 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담아와 현관 등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캠코더와 CC-TV를 설치해 아래층에 살던 A씨의 범행장면을 확보하고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부족과 불안장애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4층에서 혼자 살던 B씨의 생활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얼굴에 염산 뿌리고

경남밀양경찰은 지난 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A(37)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한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마주친 B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한 데 이어 B씨가 나타나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렸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그간 112에도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가 염산을 사 보관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 가두방송 차명숙씨 "신군부, 간첩 몰려고 무자비한 고문"

"북한군 투입설 조작 위해 보안대서 치욕스런 유린"
38년만에 증언…처벌 촉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가두방송을 맡았던 차명숙(여·58)씨가 간첩죄를 씌우려는 신군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신군부가 시민군 중 가장 유명했던 차씨 등을 간첩으로 조작해 '북한군 투입설'을 완성하려 한 방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년 전 당했던 고문 수사를 증언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사죄를 촉구했다.

차씨는 "1980년 5월19일 가두방송을 시작했고 21일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병원(기독병원 추정)에서 부상자를 돌보다 505 보안대 지하로 끌려갔다"며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그동안 떠올리기 힘들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5·18 왜곡을 바로 잡고, 자신과 같은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입을 열 결심을 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그는 "1980년 9월16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돼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던 중 어느 날 조사관들이 이미 7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죄목이 추가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시인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징벌방에서 혁시갑(양손과 허리를 길이 25㎝ 쇠줄로 고정하는 가죽 수갑)을 찬 채 먹고 자고 볼일까지 보는 등 짐승 만도 못한 상태로 지냈다"고 울먹였다.

차씨는 "조사관들이 '배후에 누가 있으냐, 교육은 어디서 받았냐'고 추궁하는 등 간첩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씨와 함께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여·68·본명 전춘심)씨도 지난 1988년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예향'과 인터뷰에서 "1980년 5월26일 붙잡혀 10일 동안 고문을 받을 때 조사관들이 자신을 '모란꽃'(암호명)으로 부르며 '모란봉(북한 간첩교육기관 지칭)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신군부는 5·18 항쟁에서 상징적 인물을 북한 간첩으로 만듦으로써 당시부터 '북한군 투입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가두방송을 맡았던 차명숙씨가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간첩 조작과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선고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공범은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과 박양이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의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여성 옷 절도범 잡고보니 여장남자…속옷은 남성용 고집

쌍나팔

○…여성복만 보면 생기는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여장을 하고 여성의류매장에서 수차례 옷을 훔친 40대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28일 새벽 0시10분께 여수시에서 B(29)씨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매장에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가져가는 등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여수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195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훔쳤다는 것.

○…동종범죄 경력 등을 포함한 전과 11범인 A씨는 낮에는 성실한 에어컨 설치기사로, 밤에는 여장을 한 여성의류 절도범으로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절도 행위시엔 하이힐과 긴 가발, 원피스 등 여성복을 착용한 반면 속옷만큼은 남성용을 고집했다는 것.

○…미혼인 A씨는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여성의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생겨 참을 수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여성복을 입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등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듯하다"고 설명.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2억 8천 ◈
(융 3억5천 가능)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 매가 : 22억 ◈
(융 1억 보 1억4천)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도(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 13억4천

5)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토 73평 건161평
감정가 6억3천8백 → 최저 6억3천8백

6) 북구 문흥동 (3층 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3억6천

7) 북구 운암동 (2층 상가주택)
토 37평 건42평 (서강정보대 1분)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8)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9) 서구 내방동 (4층 상가주택)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1)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A.P.T

① 서구 풍암동 주은모아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천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③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6천2백 → 최저가 1억천
④ 광산구 신창동 신가뷰영 (25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⑤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3천

주택

⑥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가 9천 → 최저가 6천3백
⑦ 광산구 월계동 (2층주택)
토지 68평 건물 75평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⑨ 북구 운암동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토지.기타

⑩ 광산구 하남동 (대지)767평
감정가 16억5천 →최저 16억5천
⑪ 서구 풍암동 (농지) 1,30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 3억8천
⑫ 북구 운암동 (임야) 270평
감정가 4억1천 → 최저 4억1천
⑬ 동구 용산동 (농지) 883평
감정가 1억7천5백 → 최저 1억7천5백
⑭ 동구 학동 (임야) 102평
감정가 1억5천3백 → 최저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 원 구 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